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순규 의원

안녕하십니까?

중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입니다.

오늘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지난 3월 10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」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

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
서울시에서 2021년 1년 동안 유기·유실되어 보호 조치된 동물은 개 2,784마리를 포함하여 5,605마리이고 이 중 2,273마리가 입양 또는 기증되었습니다.

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유실된 동물들은 많은 육체적·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게 됩니다.

한번 유기된 동물이 또다시 학대를 받거나 유기되지 않고 분양·기증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며 적정하게 살아가도록 분양·기증을 받는 자에게 시장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.

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! 그리고 보건복지 위원 여러분!

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